

한국지구과학회 30대 학회장 선거 학회 발전 계획서 (선거공약)

1. 인적 사항

이름	김정빈	소속	순천대학교
----	-----	----	-------

2. 학력 사항

기간	학 교	전 공	학 위
1978.03-1982.02	전 남 대 학 교	과학교육 (지구과학 교육전공)	이 학 사
1982.03-1984.02	전 남 대 학 교	암 석 학	이 학 석 사
1984.03-1990.02	전 남 대 학 교	암 석 학	이 학 박 사

3. 주요 경력 사항

기간	경 력 내 용	주 관 기 관	비 고
1988.03-1990.02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조교	전 남 대 학 교	
1990.03-1992.02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 강사	전 남 대 학 교	
1992.03-1993.02	캐나다 원저대학교 지질학과 post-Doc.	원 저 대 학 교	
1993.03-1994.08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 강사	전 남 대 학 교	
1993.12-1994.02	캐나다 원저대학교 지질학과 visiting scholar	원 저 대 학 교	
1994.06-1995.05	한국자원연구소 post-Doc.	한국자원연구소	
1995.11-1996.05	캐나다 원저대학교 지질학과 visiting scholar	원 저 대 학 교	
1995.09-1997.12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특별연구원	전 남 대 학 교	
1996.08-1998.02	전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강사	전 주 교 육 대	
1997.03-1998.12	조선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강사	조 선 대 학 교	
1997.09-1998.08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특별연구원	서울대학교	
1998.03-2000.02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시간강사	청주교육대	

기 간	경 력 내 용	주 관 기 관	비 고
2000.01-2002.06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BK사업단 초빙 연구원	서울대학교	
1999.09-2004.12	전북대학교 과학교육학부 시간강사	전북대학교	
2003.02-2005.01	목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목포대학교	
2006.01-2006.12	한국지구과학회 지구과학올림피아드 홍보 위원장	한국지구과학회	
2005.04-2007.12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전문위원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6.01-2008.12	한국지구과학회 편집위원	한국지구과학회	
2005.02-2008.02	순천대학교 과학교육학부 조교수	순천대학교	
2007.06-2008.05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장 환경영향조사서 심시위원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	
2007.11-2008.10	진도군정 자문위원	진도군	
2006.01-2008.12	한국지구과학회 홍보이사	한국지구과학회	
2007.03-2009.02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학과장	순천대학교	
2007.06-2009.05	순천대학교 교수회 평의원	순천대학교	
2008.03-2009.02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과학·환경교육학부장	순천대학교	
2008.04-2009.03	순천삼산중학교 학교운영위원	순천삼산중학교	
2009.01-2010.12	한국지구과학회 기획위원장	한국지구과학회	
2008.01-2009.12	전남발전연구원 해양·수산분야 초빙연구위원	전남발전연구원	
2009.01-2010.12	한국지구과학회 책임편집위원	한국지구과학회	
2011.01-2011.12	한국지구과학회 부회장	한국지구과학회	
2012.01-2014.12	한국지구과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지구과학회	
2014.05-2016.10	순천대학교 교수회 18-19대 의장	순천대학교	
2015.03-2016.10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감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2005.03-2019.현재	순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도교수	순천대학교	
2006.02-2019.현재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2008.02-2019.현재	전라남도 정책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2010.02-2019.현재	전라남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2010.10-2019.현재	교육과학강국실천호남연합 사무처장	교육과학강국실천전국연합	
2012.01-2019.현재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	

기 간	경 력 내 용	주 관 기 관	비 고
2012.08-2019.현재	중학교 과학 인정도서 감수위원	한국과학창의재단	
2014.04-20179현재	순천대학교 물리교육과 교수	순천대학교	
2015.01-2017.12	한국지구과학회 편집위원	한국지구과학회	
2017.05-2018.12	문화재전문위원(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청	

4. 주요 학술 활동

일 시	학 술 활 동	주 관 기 관	비 고
1995.06.30.	- SCI & SCIE 논문: 17편 대표 SCI 논문: Turek, A. and Kim, C.B., 1995, U-Pb zircon ages of Mesozoic plutons in the Damyang - Geochang area, Ryeongnam massif, Korea. Geochemical Journal, 29, 243-258.	Geochemical Journal	
2008.09.30.	- KCI 논문: 66편 대표 KCI 논문: Kim, Cheong-Bin, Kim, Jeongmin and Huh, Min, 2008, Age and stratification of Dinosaur eggs and clutches from Seonso Formation, South Korea. The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29(5), 386-395.	The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1998.12.31.	- 전문학술보고서: 15편 대표 전문학술보고서: 박기화, 이병주, 조등룡, 김정빈, 1998, 1/50,000, 화천지질조사 보고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3p.	한국자원연구소	
2009.12.10.	- 저서: 3편 대표 저서: 김찬중, 김경수, 김정률, 김정빈, 김종현, 맹승호, 박수인, 신인현, 윤성효, 이문원, 이효녕, 정공수, 조규성, 진명식, 가족이 함께 떠나는 주말 지질 여행. 도서출판 이치, 259p. (ISBN 978-89-91215-13-9).	한국지구과학회	

5. 학회 발전을 위한 활동 계획

본 입후보자는 전남대학교 과학교육과(지구과학전공)에서 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담양-진안 사이에 분포하는 업리상화강암류에 대한 지질시대와 성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국내 학자로는 최초로 박사후 연구원 자격으로 캐나다 윈저대학교 지질학과에서 저어콘을 이용한 U-Pb법 절대연령측정 연구를 수행하여 한반도에 분포하는 중생대 기반암의 암층서 확립과 지구조 운동사를 밝히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연구소와 지구환경과학부 BK사업단에서 각각 특별연구원(1997.09-1998.08)과 초빙연구원(2000.01-2002.06)으로 근무하면서 Rb-Sr, Ar-Ar, K-Ar, AMS 분석, 광역 테프라의 연구를 통하여 선캠브리아기 기반암부터 제 4기 활성단층 및 고고학 분야에 이르는 시공간적 사건들을 밝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도폭실에서 박사후 연구원(1994.06-1995.05)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도폭조사(1/50,000) 사업에 공동조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2005년 순천대학교 과학교육과에 부임 후 순천대학교 제18대와 19대 교수회 의장을 역임하였고, 한국지구과학회 부회장·이사·편집위원장·편집위원 등을 거쳤습니다. 그동안의 발표한 연구 논문은 SCI 및 SCIE급 17편, KCI 66편 등 총 83편입니다. 논문의 완성도와 학문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인용횟수는 전체 논문을 기준으로 총 830여 회이며, 100회 이상 인용된 논문은 3편입니다(2019. 8. 22. 현재).

한국지구과학회는 1964년 창설 이래 지구과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학술 성과 보급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매년 7회의 학술지를 발간하며 국내 유수의 학회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구과학사전』과 『지구과학 학술용어집』을 출간하여 학술 성과의 보급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구과학 대중화의 일환으로 한국지구과학 올림피아드를 운영해 왔으며 국제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최우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떠나는 주말 지질 여행』을 발간하여 지구과학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야외지질답사 학습장을 개발하는 데에도 주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본 학회가 이루어낸 빛나는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술지 투고 논문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학술지 발행 횟수 감축, 국내 올림피아드 지원자 감소, 수년째 계속되는 학회 예산 규모의 정체, 회원의 양적 및 질적 확장의 실패, 과학관·자연사박물관·공룡박물관·천문대 등 국내 120여 개에 달하는 지구과학 관련 과학문화기관과 구성원, 그리고 지구과학 교사의 참여율 저조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실에 앉아서 자신의 안위만을 도모하는 것은 학자의 도리가 아니며 그동안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선배님과 여러 회원 여러분의 뜻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출마를 결

심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당면한 학회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공약을 제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세계경제포럼의 창시자 중 하나인 클라우스 슈바브(Klaus Schwab)가 2015년에 포린 어페어의 기고글에서 처음 사용했다. 2015년부터 여러 도서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후,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학자에 따라 제시하는 키워드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의 발달이 주요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같이 제4차 산업혁명은 인류 문명사에서 대전환기의 시작이며 본 학회의 미래의 위상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사료됩니다. 천문, 대기, 지질, 해양, 교육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융합과학분야로 결집하고 학문적 후속세대에게는 창의력과 따뜻한 인성함양을 지원하는 비전을 갖춘 학회로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회원들의 원활한 소통 시스템 구축과 인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학회의 근본은 회원이며, 학회의 운영은 회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원활한 소통 시스템 구축을 학회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전공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진을 구성할 때 대학(전공분야 포함), 초·중등교육 현장, 연구기관, 과학문화기관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집행부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해 SNS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학회 홈페이지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잠재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우리 학회가 과학분야의 명실상부한 대표 학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회장 직선제를 추진하여 (수석부회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학회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인적혁신이 요구됨) 학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회원들의 복지 향상과 자긍심 함양에 주력하겠습니다.

① 학회 누리집의 공개자료실 운영 : 지구과학과 관련된 각종 학술 사진, 동영상, 학습 자료 등을 무상으로 기증 받아 비영리를 전제로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② 본 학회의 융복합적인 특성을 활용한 회원 연수 추진: 학회에 대한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공분야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컨대 지질학자와 천문학자, 그리고 해양학자들의 안내로 미국 서부 국립공원지역 → 팔로마산 천문대 →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등을 연결하여 돌아보는 연수 프로그램을 추

진하겠습니다. 이미 타 학회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십 수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 간의 유대관계 증진과 전공분야 심화에 도움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③ 새내기 교사의 연수 추진: 최근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교사를 위한 초·중등교사 연수를 학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천체관측 실습, 야외지질조사, 관광현미경 관찰, 지질공원 답사, 기상관측실습, 지질과 해양관련 천연기념물 답사 등 임용시험 준비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실용과학 부분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교육 연수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④ 학습자료의 개발 및 보급: 그동안 얻어진 학술적인 성과를 학습자료로 개발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보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⑤ 지구과학분야 전문 강사 파견: 과학교사 동아리, 청소년 과학캠프, 학력고사가 끝난 후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유학습시간 등에 지구과학분야 전문가의 특강을 주선하여 강의의 질을 제고하고 지구과학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⑥ 학회와 관련된 국내외 대회의 활성화 추진: 매년 개최되는 지구과학올림피아드와 2019년 8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토대로 한국지구과학회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⑦ 학회 편집위원회 활성화 및 신규 회원 확보: 편집위원회와 회원의 지혜를 모아 학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지의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회원은 주로 대학과 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 인력이며, 초·중등교육 현장과 지구과학 관련 과학문화기관에서 일하는 회원은 소수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건실하고 지명도 높은 학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신규 회원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⑧ 학회의 위상에 부응하는 활발한 국제 교류 추진: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를 계기로 우리 학회는 자연스럽게 국제화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동안 연구와 관련하여 구축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고리로 중국, 일본, 인디아, 미국, 캐나다, 이집트 등의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우리측 전문가를 파견하는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지원하는 각종 국제협력 사업중에서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교육, 정보통신 및 의료정보시스템 분야에 대한 무상개발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이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과학 관련 학회 또는 이공계 학회들과 연합하여 개발도상국의 무상기술 협력사업과 관련한 국내초청연수, 현지연수,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사업 및 프로젝트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학회의 재정 확보와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① 국책사업 발굴 및 수주: 본인은 순천대 교수회 의장,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이사, 문화재청 전문위원, 지자체 정책위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활발한 교육 및 사회활동을 통해 구축한 인맥을 바탕으로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교육부·미래부·국회 관련 상임위원

회·지방 정부 등을 설득해 사업을 수주하여 학회의 재정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② 기금 확보 및 기부 문화 활성화: 평생회비를 재조정하고 이를 기부금으로 전환하여 연말정산 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구과학회의 재정 건전성 향상과 영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회원들의 지식 및 재능 기부 등 기부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선견지명을 지닌 맹자는 恒産은 恒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학회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야 지속적인 회원 확보와 긍정적인 위상 정립이 가능하며 아울러 수행하는 사업들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지구과학분야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과학문화기관의 성장과 연착륙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과학문화기관은 주로 과학관, 천문대, 자연사 박물관 등으로 약 12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상당수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재정이 매우 취약하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인원은 근무 여건이 열악한 오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이 기관과 종사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상이 제가 바라는 학회의 모습이며 또한 제가 실천하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저에게 본 학회의 회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회원들의 의견과 여망을 반영하여 우리 학회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성숙되고 격조 높은 명품 학회로 성장하도록 열과 성의를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김정빈 드림